월/요/광/장

장성민

오바마와 김정일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으로 흑인 버락 오바마(47)가 당선됐다. 그의 이름 '버락'은 아프리카 이름이다. 오바마의 조상은 아프리카 케냐의 흑인이다. 미국 역사 232년 만에 처음으로 백인의 노예였던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보다 아프리카가 더 흥분하고 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이후 민주주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보여준 최대의 선거 기적이자 정치혁명이 아닐 수 없다.

1863년 흑인 노예해방을 선언한 에브러햄 링컨은 노예해방을 반대했던 백인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1963년 약 30만의 군중이 모인 워싱턴광장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외치면서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 또한 백인이 쏜 총탄에 쓰러졌다. 흑인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이 두 사람의 희생이 뿌린 결과이자 피와 슬픔으로 얼룩진 흑인 인권운동의 승리인 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50년 동안 동서독의 냉전과 분단의 상징물인 베를린장벽보다 더 공고했던 인종장벽을 붕괴시켰다. 그런 오바마가 한반도로 눈을 돌린다면 지구촌의 마지막 냉전 폐물인 남북분단의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한반도에 '철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변화와 평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 그 장막의 키는 과연 누가 쥐고 있는 걸까.

그 키는 분명 오바마에게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키의 사용방법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쥐고 있다. 오바마의 미국과 김정일의 북한은 지금 동병상린(同病常鱗)에 처해 있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신뢰의 위기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 파국 직전의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자본주의 체제와 수령주의 체제라는 체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로 경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공통적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점, 북미정상회담과 관계 정상화를 이뤄 경제안정과 체제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문제는 20년간 후계자 수업을 받고 북한을 이끌어 온 김정일 위원장이 젊은 오바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혹시, 김 위원장은 과거 40대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이 된 케네디의 리더십을 시험해 보기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리 쿡, 저리 쿡 찔러' 보듯이 오바마를 시험해보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또 다시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북미 직접 담판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대담한 결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들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남북한 간에 아직 대화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북미간의 직접대화로 핵문제와 관계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외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미채널 구축을 위해 떠들고 있는 동안, 북한의 이근 미국국장은 뉴욕으로 들어가 미국 외교의 대부인 헨리 키신저를 만났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만사미통(萬事美通)의 외교정책'(모든 외교력을 미국에 집중시키면 한국, 중국, 일본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북한식 외교정책)을 펴면 한국은 다시 변방으로 밀려난다. 지금처럼 남북대화가 막힌 상태에서 오바마와 김정일이 만난다면 한반도에 평화는 오겠지만 그 평화는 완전한 평화, 영구평화가 아니라 불완전한 미완의 평화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외교적 시련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정전협정의 당사국에서 배제되는 한 순간의 이승만 정권의 외교적 실수로 분단 당사국인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분단외교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아직도 미국과 북한이 주도하는 정전협정의 주 당사국이 아니다. 또 다시 외교적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창안해 내지 못하면 미국과 북한에게 한반도의 외교주권을 빼앗기는 이승만의 길을 답습할 지도 모른다. 오바마와 김정일의 회담을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광주비엔날레 차별화 전략이 살 길이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어제 66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올 비엔날레에는 36개국 127명의 작가들이 참여, 현대미술의 흐름을 드러낸 작품 550여점을 선보여 호응을 받았다. 비엔날레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애쓴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올 비엔날레는 어느 때보다 실험정신이 강한 무대였다. 광주비엔날레 사상 최초로 외국인이 예술총감독을 맡아 행사를 기획했다. 특정 주제 없이 '연례보고' 형식으로 열린 점도 특이하다. 세계 유력 언론과 미술전문가들은 "광주비엔날레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세계 비엔날레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행사기간 도시 곳곳에 설치된 전시장에선 미술의 대향연이 펼쳐졌다. 특히 재래시장에 현대미술을 접목시킨 대인시장은 상인과 작가, 시민이 소통을 하는 새로운 문화명소로 부상했다.

관람문화도 달라졌다. 관람객이 지난 2006년 비엔날레 때보다 다소 줄었지만 관 주도의 단체관람보다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다는 것은 비엔날레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외국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의 현대미술을 선도하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부산비엔날레와 상하이비엔날레, 싱가포르 비엔날레 등 아시아권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맹렬하다. 오늘의 성과에 안주해선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대표적 미술축제로 도약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오쿠이 엔위저 예술총감독의 고언이 주목된다. 그는 "인기에 치우치는 대중주의보다는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담론적인 쟁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비엔날레가 변화와 개혁, 전략적 차별화를 통해 세계적 미술축제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광주 응급의료서비스 전국 '최하위'라니

광주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광주의 응급의료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체계가 허술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큰 일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해 전국 107개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뇌경색,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3대 응급환자의 치료 전 응급실 대기시간을 조사한 결과, 광주가 8.6시간으로 부산(12.1), 대구(8.6)와 함께 최하위권에 올랐다. 전국 평균 6.0시간보다 2시간 이상 길고, 가장 짧은 전남의 2.3시간과는 6시간 넘게 차이가 난다.

심장혈관이 막힌 급성 심근경색환자가 응급실 도착 후 30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은 비율도 14.3%로 전국 평균 26.4%를 크게 밑돈다. 권고기준인 90분 이내에 심근경색 환자에게 혈관 재개통 시술을 한 경우도 전국 평균 61.6%보다 낮은 54.1%에 그쳤다. 더욱이 광주는 응급환자 도착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비율이 1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응급의료센터들이 '환자 떠넘기기'를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응급의료 수준을 높이려면 전담의사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광주·전남 응급의료기관 30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9곳이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한 법적 기준을 어기고 있다. 전담의사가 1명도 없는 응급의료기관도 71곳이다. 병의원들이 응급환자 의료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추가 투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기초 안전망인 응급의료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응급의료수가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병원들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인다면 생사의 갈림길에 선 많은 응급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송민경

정의의 여신

8개월 전 검사로 임관할 때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거창한 포부로 시작했건만, 밀려드는 수많은 사건 처리에 여념이 없다 보니 어느새 그런 다짐을 잊고 지낸 것 같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모 방송국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사법연수원 검찰 교수인 김혁재(배우 문성근)가 연수생들에게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묻자, 연수생들이 그 이유를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때 문득 '정의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게 되었다. 혹시 정의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물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의 상징은 해태('해치'라고도 함)이다. 해태는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덤벼들어 뿔로 받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해 예로부터 정의를 수호하는 상상의 동물로 불리고 있다.

서양에서는 이집트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라(ra)의 딸인 마아트(maat), 그리스신화의 디케(dike), 로마신화의 유스티치아(justitia)가 정의의 여신으로 상징되고 있다. 오늘날 영어로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는 유스티치아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디케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신화가 있다. 하늘이 처음 열리던 황금시대에는 신과 사람들이 행복과 평화를 느끼면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제우스가 일년을 사계절로 나누어 생성과 소멸을 유도하면서 질서와 다툼이 뒤섞인 은의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의 욕망은 계속 심해져 전쟁을 일삼았는데 이때를 청동의 시대라 부른다. 청동의 시대에 신들은 사람들이 싫어 하늘로 올라갔지만, 정의의 여신인 디케만은 지상에 남아 손에 천칭을 들고, 분쟁 당사자들을 천칭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을 쟀다고 한다.

이후 철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살상무기로 싸우고 죽이며 타락하게 되자 디케 마저도 손에 천칭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고, 디케는 처녀자리가, 천칭은 처녀자리 옆에 천칭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린 채로,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의 모습이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정의를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해야 함을 의미하고,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의미하며, 칼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의의 여신 모습은 시대 상황, 만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떤 여신상은 진실을 정확히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눈을 뜨고 있기도 하고, 모든 분쟁을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의해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기도 한다.

사람들의 분쟁을 디케처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검사도 한낱 인간인지라 사건이 발생하면 그 후의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문·유전자·심리분석·디지털증거 등 과학적 증거로 진실을 밝혀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과학적 수사만으론 진실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으로 인해 진실 규명이 매우 어려운 것이 수사현실이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사건 처리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에 버금가는 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이덕수

'한국형 오바마'를 기대하며

최근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에 흑인 오바마가 당선됐다. 엄밀히 말하자면 흑인이 아니라 케냐출신 흑인 아버지와 켄사스 출신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다.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다문화 가정이 새삼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앞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8월 이후 28쌍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친정에 다녀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이 중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필리핀에서 시집와 결혼 17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나들이를 하게 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는 고국을 다녀온 뒤 농협에 눈물어린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국 땅에서 시집와 문화·언어 차이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는 고통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정어머니가 누구보다 필요하다. 이와 관련,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6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전남도내 각 시·군 여성지도자 간에 친정어머니 맺기 사업을 시작한 결과 모두 130쌍의 가족이 탄생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행복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새로 맞은 친정어머니에게 남편과 가족을 소개하고 부부가 합동으로 큰절을 올리는 상견례가 마련됐다. 이들은 친정어머니와 배갯잇에 천연염색을 하며 모처럼 가족의 중요성과 사랑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야기가 아직도 귓전을 맴돈다. 12년 전 필리핀에서 시집와 무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여성은 지난 추석에 결연한 친정어머니집에서 지냈다며 처음으로 명절다운 명절을 보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들이 나서 결혼이민들이 하루빨리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9월22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시행돼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결혼이민자들은 젊은이들이 떠난 황량한 우리의 농촌 가정에 아기의 울음과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게 한 주인공이자 버팀목들이다. 특히 농촌에서 자라날 결혼이민자들의 2세는 소중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해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한층 필요하다.

그동안 농협 전남본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부인과 항목 무료검진, 모국 방문 지원, 전통문화 체험, 다문화 여성대학 시범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국적취득자 무료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신청을 대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농협은 결혼이민자들이 더 많은 한국 친정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시켜주고, 이국의 삶에 대한 불안감 없이 편안한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결혼이민자들의 2세가 제 2, 제 3의 한국형 오바마로 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들이 세계를 향해 변화와 역사를 새로이 쓰겠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아닐까.

〈농협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無等鼓

진정한 사과

잘못은 비난 받지만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비난은 대중이 유명인에게 매기는 말(言)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공인의 언동이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식민지와 전쟁, 분단이란 혹독한 시기를 겪은 세대에게 생존은 절대명제였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신을 파는 일은 생존의 댓가였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93세로 작고한 이항녕 선생. 학자이자, 언론인, 고위관리를 역임한 당대 대표적 지식인이다. 일제 때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그는 27세의 나이에 경남 하동군수직에 올랐다. 그가 50여년만인 1991년 하동군민의 초청을 받고 하동에 갔다. 그는 "출세와 보신에 눈이 멀어 죽창을 들고 군민들을 위협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그의 고백이 빛나는 것은 일생을 일관했다는 점이다. 그는 8·15 광복 이후 수많은 자리와 글을 통해 과오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반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특히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신앙의 또 다른 힘이다. 2000년 3월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기독교 2천년 역사에서 교회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또 가톨릭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한 이들에게도 용서를 빌었다.

역사의 경험을 다루는 방식은 두가지다. 기억을 통한 해법과 망각을 통한 해법이다. 진실은 분명하다. 역사적 과오든 성과든 제대로 기억하는 국가만이 진보할 수 있다.

최근 5·18이나 호남인에 대한 막말이 가관이다. "5·18은 북한 특수부대원이 일으켰다"는 망언을 한 서울 모교회 목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교회 장로들이 최근 5·18묘지를 방문하면서 "사과가 아니라 위로 차원이다"고 말했다. 진정한 사과의 위대함을 모르는 한 종교인의 인식이 한심스럽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자동차 정비업체 고무줄 요금 강력 단속을

며칠 전 필자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적지 않은 수리비용이 걱정됐다. 수리를 위해 세 군데의 정비업체를 들렀던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업체마다 최고 30만 원의 차이가 났던 것이다. 이 정비업체들은 모두 표준 공임으로 산정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부품가격도 전산화되어 있어 바가지 요금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비금액은 이처럼 큰 폭으로 달랐다.

이렇게 천차만별 요금을 부과하는데 어느 고객이 업체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정비업체의 고무줄 요금책정 상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잘 안다.

하지만, 문제는 부당 요금책정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민원이 수없이 발생해도 강력한 단속으로 이런 문제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있다. 서민이 두 번 울지 않게 강력한 단속을 바란다.

▲김영균·광주시 동구 지산동

수입 재료·식품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의무화해야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은 모든 국민이 안다. 제과점에 가면 맛있는 빵과 과자들이 즐비하다. 제과점에서 굽는 빵과 과자의 재료는 미국에서 반가공 상태로 수입된 빵 반죽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구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트랜스지방이 상당량 함유돼 있다.

대형 마트 등에서 팔리는 수입산 빵이나 과자에도 트랜스지방이 국산 제품보다 많게는 10배가 이상 함유돼 있다고 한다. 이는 고소한 맛을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수입업체들도 계속 쓰는 것이다. 하지만 트랜스지방은 그 섭취가 2%만 늘어도 심장질환과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빵이나 과자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사용하는 수입 재료에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연자·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